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연구

박은경*

<목 차>

- I. 머리말
- II.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표현·기법
- III. 도상 및 화풍상의 특징
- IV. 칠성도의 조성과정과 契의 결성
- V. 맺음말

국문요약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주제의 많은 불화들이 조성되었다. 그 중 밤 하늘에 수놓인 북극성 및 북두칠성을 비롯한 여러 별들을 불교 및 도교적 도상으로 표현한 불화를 칠성도라 칭한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칠성도는 100건 이상이 넘으며, 부산 범어사에는 10여 점의 칠성도가 남아 있다. 이 글은 부산 범어사 소장 칠성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1891년 제작된 범어사 극락암 소장 <칠성도>를 중심으로 작품의 특징과 화풍 및 조성의의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가로축이 긴 장방형의 화면이나 칠성도의 구도, 도상들을 상·하단 2단으로 배치하는 형식 등에서 19세기 불화의 일반적 형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도상의 배열과 표현에 있어 상단의 불격화 된 치성광불·칠성여래보다 하단에 배치된 도교의 도상적 표현인 칠원성군을 중심이 되게 부각시킨 것은 극락암 <칠성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화풍은 채색·문양기법 등에 있어 19세기 부산·경남 일대에서 활약한 수룡당 기전의 화풍이 간취된다. 이 작품에 관여한 수화승 민규와 보조화승 전학과 덕림 또 이들과 다른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또한 본 논문은 부산 범어사 칠성도 보수 보고서(금강문화재·범어사, 『부산 범어사 칠성도 보수·보존』, 2013, 68~77쪽)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작품에서 함께 작업한 여러 화승들과의 관계를 통해, 민규는 기전과 함께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화풍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기의 내용 중 극락암 <칠성도> 제작의 시주로 甲會契 계원들이 동참하였음이 주목된다. 조선시대 후기와 말기가 되면 도교 및 칠성 신앙이 성행하였는데, 특히 칠성 신앙의 유행은 칠성계의 결성으로 반영되었다. 범어사의 갑회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이 ‘契’는 범어사 다른 불화 조성의 시주에도 관여하고 있어 범어사 불화 제작의 재원임을 알 수 있다. 조선 19세기에 활발했던 계의 결성이 사찰 불화 제작의 경제적 뒷받침과 더불어 신앙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를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범어사, 칠성도, 민규, 기전, 칠성계

I. 머리말

칠성도는 통례적으로 七星幀이라 부르는 불화로, 사찰 내에서 七星閣, 北極殿, 金輪殿, 北斗閣 등의 전각에 봉안된다. 하늘에 수놓인 여러 별들과 北斗七星 및 北極星 등을 불교 및 도교적 도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불교와 도교의 융·복합을 보여주는 작품이자 한국색이 강한 대표적 불화이다. 특히 천공의 중심인 북극성은 칠성도의 본존불인 熾星光如來(혹은 熾星光佛)로 化하여 표현되며, 옛부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던 북두칠성은 불교의 인격체인 七星如來 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응되는 도교의 도상인 紫微大帝와 七元星君도 함께 칠성도에 흡수되어 등장하는데, 이들이 지닌 권능으로 인해 칠성도는 재난소멸과 무병장수 및 生子得男을 염원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 조성된 칠성광불 및 칠성 관련 도상 불화는 100건 이상으로 파악되며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¹⁾ 특히 범어사에 남아 있는 칠성도는 대략 10여 점이며, 극락암 <칠성도>는 1891년에 제작된 것으로 가장 이른 작품에 해당한다.²⁾ 본고에서는 범어사의 칠성도 중 19세기에 조성된 극락암 <칠성도>의 작품상의 특징과 수화승 민규의 화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화기 분석과 함께 조성의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표현·기법

부산 범어사 극락암 소장 <칠성도>(도 1)는 세로 111.3cm 가로 180.7cm 크기의 면 바탕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光緒辛卯(1891)에 제작되었다. 바탕 베는 향우측으로부터 93.6cm, 86.8cm의 면 2폭을 연결하여 하나의 화폭을 형성하였다. 화면 상하단부에 습기로 인한 얼룩자국이 심한 편이었으나, 최근 보수로 인해 화면 전반적으로 보이던 오염흔은 많이 제거된 상태이다.³⁾

1) 조선시대 칠성도에 대한 논고로는 차재선,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149쪽 ;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고고미술』186, 한국미술사학회, 1991 ; 박효열, 『조선 후기 칠성도 비교연구 : 전라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양식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강소연, 『조선시대의 칠성탱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101쪽 ; 『강소연의 미술사 기행(3) : 천공의 별들이 부처님으로 化하다』, 『문학·미술·철학』16, 한국불교사연구소, 2009, 188~204쪽 외.

2) 박은경 외, 『범어사의 불교미술』 석당학술총서19, 선인, 2011, 209~210쪽.



도 1.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조선 1891년, 면본채색
111.3×180.7cm



도 2.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부분), 조선 1891년



도 3.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부분), 조선 1891년

반을 갖춘 보관을 착용하였고, 양손에는 연봉가지를 쥐고 있다. 그리고 왼쪽 그룹은 遠遊冠 형태의 관과 소매가 긴 관복을 착용하였다. 중앙의 흰 수염을 기른 자미대제로 추정되는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집홀상의 보필성이 시립하였다. 오른쪽 육성 그룹은 투명 두광을 갖추고 두발의 발계 주변을 금구로 장식하고

화면은 옆으로 넓은 장방형 화면으로, 상하 이단으로 구분하여 도상들을 옆으로 넓게 배치하고 있다. 화면 상단은 천공을 배경으로 둥근 반원형의 방광에 감싸인 세 그룹의 군상들이 각기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그룹은 여래형의 치성광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월광보살을, 그 주위에는 칠성여래 7위를 둥글게 배치하였으며, 방광의 가장자리는 오색의 색띠를 둘러 좌우그룹과 구분 짓고 있다(도 2). 왼쪽 그룹은 紫薇大帝와 左輔右弼星을, 반대쪽인 오른쪽 그룹은 三台六星을 배치하였는데, 이들을 감싸는 둥근 반원형 방광의 실체는 뭉개뭉개 피어오른 구름으로 표현하여 중앙의 그룹과 구별하고 있다(도 3·4).

중앙 그룹의 치성광 여래형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올린 설법인 모양이고, 좌협시 일광은 붉은 원반을, 우협시 월광은 흰색 원

ㄱ/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최근 금강문화재연구소(2012.3.12~2012.12.31)에서 보수하였다.

적색·녹색·청색 등의 관복을 착용하였으며, 2위씩 짝을 지어 홀을 쥐거나 합장 혹은 소매로 양손을 가린 공수 형태이다.

하단에는 칠성을 의인화한 칠원성군 좌상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보관과 소매가 긴 관복을 착용하였고, 양손은 소매 안으로 감



도 4.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부분), 조선 1891년

춘 공수이거나 혹은 홀을 쥐거나 다양한 손짓을 하고 있다. 칠원성군 아래쪽 전면에는 성군마다 구름을 타고 시립한 동자 혹은 공양여성상을 1위씩 배치하였다. 칠원성군 신부마다 백색의 운문으로 각각의 칠원성군을 구별하듯 감싸고 있어 신광을 의도한 표현임이 감지되며, 이들 7위의 배경에는 역U형의 칸막이 형태의 광배를 표현하였고, 그 내부에는 마름모 문양을 삽입한 점묘식 연속 화문을 장식하였다.

치성광불의 육신은 황백색 바탕에 담갈색으로 윤곽선을 잡고, 떡색 두발에 윤곽은 녹색 선으로 처리하였다. 상호는 약간 가름한 둥근 형태로, 콧등에서 콧방울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폭이 급격히 넓어지는 형태이다. 하단의 칠원성군은 얼굴에 백색을 바르고, 담주색의 육신선을 따라 붉은 색을 얇게 퍼발라 음영을 주었다. 그리고 눈썹과 수염은 연백색 바탕에 백선으로, 혹은 담떡 바탕에 농먹의 세선으로 한 올씩 그려 나타내었다. 착의는 적색과 녹색, 청색 착의에 녹색 혹은 주색의 친의를 양쪽 어깨에 걸치고 있는데, 녹색과 청색에는 백색의 소형 화문을, 주색 착의에는 백색의 소형 삼점화문을 각각 흘뜨려 장식하였다.



도 5.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부분) 조선 1891년

전체적으로 도상들의 착의는 주로 적색과 녹색, 청색의 배색을 사용하면서, 백색과 떡색을 활용하여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그 외 치성광불·칠성여래를 감싼 광배, 성군들의 보관 및 발계의 금구 장식, 칠원성군들의 각대 등에 금박을 사용하였다(도 5). 유색 두광은 진녹색과 연녹색을 번갈아 채색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투명

두광의 경우에도 먹 혹은 백색을 바림하듯이 얇게 퍼발라 변화를 주었다. 상단의 천공은 양청색을 바르고, 구름은 세 가지 종류의 채운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는데, 천공과 상하단의 경계부에는 황색과 녹색의 채운을, 하단의 칠성원군의 주변과 바다부분에는 백색의 채운을 각각 장식하였다.

화면의 색상은 8가지로 분류되며, 두광 및 착의의 녹색은 석록으로 보이고, 배경과 착의에 사용된 청색은 석청과 코발트청 등이 사용된 경우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채도가 높은 양청색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황색 구름은 황토, 백색의 육신색은 호분과 연백으로 추정되며, 적색의 착의는 주사, 칠원성군이 앉은 갈색 의자 및 족대는 석간주로 추정된다.⁴⁾ 그 외 화면 하단 중앙에는 주색 바탕에 먹선 테두리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본 작품의 조성시기와 화승 및 시주자, 그리고 발원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III. 도상 및 화풍상의 특징

1. 도상의 구성과 배열



도 6. 일본 호주인(寶珠院) 소장 칠성광불칠성도
16세기, 마본채색, 198.0×99.0cm

조선시대 칠성도는 도상의 구성 및 배열에 따라 화폭 구성이 1폭, 3폭, 6폭, 혹은 8~11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⁵⁾ 대개 1폭 형식에 보이는 칠성도의 도상구성은 결가좌한 치성광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과 월광보살, 칠성여래가 배치되고, 그 외 주위에 보필성, 칠원성군, 三台六星, 28宿 등이 구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칠성도의 칠성은 북두칠성을 뜻하나, 이들의 본존은 북극성을 불격화하여 치성광불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15·16세기에 조성된 星宿와 관련된 사례는 현재 일본 高麗美術

⁴⁾ 금강문화재·범어사, 『부산 범어사 칠성도 보수·보존』, 2013, 37~41쪽.

⁵⁾ 칠성도의 화폭 형식에 대해서는 차재철, 앞의 논문, 1987, 1~149쪽.

館(舊 觀知院) 소장 <치성광불계성도>(15세기), 일본 호주인(寶珠院) 소장 <치성광불칠성도>(16세기)(도 6) 등 2점이 알려져 있다. 특히, 호주인(寶珠院) 소장 조선 불화는 화면 중앙에 정면향의 치성광불과 일광·월광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을 중심으로 좌우 주변에 삼태육성과 28수가 배열, 상단에는 두광과 신광을 갖춘 칠성여래가 좌상으로 일렬·배치되어 있다.⁶⁾ 이 칠성도의 도상구성과 배열은 조선후기 칠성도 도상의 모본이 되는 귀중한 사례이다.

18세기의 칠성도 사례는 현재 곡성 태안사 <칠성도>(1739), 구례 천은사 칠성각 <칠성도>(1749) 등 몇 점에 지나지 않는다. 천은사 <칠성도>(1749)(도 7)는 수화승 義兼이 제작한 것으로, 화면을 3단으로 구성하여 각 단마다 도상들을 서사적으로 표현하였다. 화면 중앙에는 강림하는 치성광삼존불을, 상단에는 각 보필성을 거느린 칠성여래 7위를 배열하였다. 중단과 하단 치성광삼존불 주변에는 7위로 구성된 관복을 착용한 집홀상의 성군들을 총 네 그룹으로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동서남북 4궁에 위치한 28수 성군들을 나타낸 것이다. 천은사 <칠성도>에는 도상들마다 도상명을 밝힌 방제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이와 더불어 천은사 <칠성도>(1749)의 도상구성 및 배열 형식 등은 19세기 문수사 <칠성도>(1855)(도 8)로 계승된다.



도 7. 구례 천은사 칠성도, 조선 1749년, 견본채색, 105×136cm



도 8. 울산 문수사 칠성도, 1855년, 견본채색, 102.5×136.5cm

19세기는 칠성도 불화의 대부분이 제작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때 제작된

⁶⁾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아트, 2008, 83쪽.



도 9. 산청 정취암 칠성도, 조선 1891년, 면본채색
111.5×138.0cm

칠성도의 도상 구성과 배열 등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를 보인다. 대표적인 형식으로, 화면을 상·하 이단으로 구분하여 도상들을 일률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대개 상단에는 불교에 흡수된 북극성과 칠성을 불·보살상으로 신격화한 치성광삼존불과 칠성여래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하단에는 의인화된 도교의

神인 칠원성군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산청 정취암 <칠성도>(1891)(도 9)처럼 하단 칠원성군의 중앙에 치성광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미대제 도상을 배치하기도 하고 사례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자미대제는 흰 수염을 기르고 원류관과 관복을 입고 홀을 쥔 대관집홀상의 제왕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범어사 <칠성도>(도 1 참조)는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가로 폭이 넓은 화폭(세로 111.3cm 가로 180.7cm)이나,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3개의 반원형 방광 안에 존상을 나뉘 그렸다. 중앙에 치성광여래삼존과 칠성여래를, 좌우로 나뉘진 두 개의 원 안에는 각각 삼성과 육성을 나뉘 그렸다. 하단에는 제왕 모습의 칠원성군 좌상을 부각시켜 묘사하고, 각 칠원성군마다 칠성동자 및 공양여성을 곁에 두었다. 19세기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치성광불·칠성여래 그룹과 칠원성군 그룹을 각각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여 배치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더욱이 본 불화는 치성광불삼존과 칠성여래가 강조되지 않고 화면 하단에 소매가 긴 착의와 관모를 착용한 제왕 모습의 칠원성군을 전면에 내세워 부각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칠원성군들의 얼굴표현과 시자인 동자들의 다양한 포즈를 세밀히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치성광삼존불과 칠성여래를 중심으로 삼성군과 남두육성군을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한 점 역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화면 상단의 치성광불·칠성여래 못지않게 칠원성군을 비중 있게 부각하여 그린 불화는 직지사 삼성암 <칠성도>(1888)(도 10), 정취암 <칠성도>(1891), 봉곡사 극락암 <칠성도>(1899), 대각암 <칠성도>(19세기) 등이 있다. 이

7 『한국의 불화 5 : 해인사 본말사편(하)』,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도93 참조.

같은 흐름을 이어받은 범어사 <칠성도>의 도상구성이나 배치 등은 20세기 전반에도 국민대박물관 소장 <칠성도>(1925)(도 11), 부산 지장암 삼성각 <칠성도>(1934), 원광대박물관 소장 <칠성도>(1946)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성광불·칠성여래에 비해 특히, 칠원성군을 비중 있게 부각시켜 표현한 것은 본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본 불화(도 1 참조)의 상단 도상들의 배경으로 표현된 대형의 반원광 이미지는 대둔사 대광명전 <칠성도>(1845)(도 12), 화엄사 금정암 <칠성도>(1872), 신흥사 <칠성도>(조선후기)에서 선행하는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범어사 <칠성도>의 경우 반원형의 방광 이미지가 세 그룹의 배경으로 구획 지워져 나타나는 변화를 보인다. 이 또한 20세기 전 반경에 이르러 국민대박물관 소장 <칠성도>(1925), 부산 지장암 삼성각 <칠성도>(1934)(도 13)에서 그 이미지를 계승하고 있다.



도 10. 직지사 삼성암 칠성도, 조선 1888년, 마본채색 149×146cm



도 11. 국민대박물관 소장 칠성도, 일제강점기 1925년 면본채색, 72.5×178.7cm



도 12. 대둔사 대광명전 칠성도, 조선 1845년, 견본채색 177×163.5cm



도 13. 부산 지장암 삼성각 칠성도, 1934년, 면본채색, 86.8×143.5cm

2. 수화승 玟奎의 화풍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묵서화기에는 玟奎, 典學, 德林 3인이 제작에 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수화승 玟奎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화승으로, 그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화는 모두 3점이 확인된다<표 1 참조>.⁸⁾ 범어사 <칠성도>를 비롯하여 1892년에 진주 청곡사 <시왕도> 중 삼라천자도(1892), 창원 성주사



도 14. 창원 성주사 신중탱, 1892년, 면본채색, 159.5×141cm

<신중도>(1892)(도 14) 등이 다.

민규에 이어 보조화승 典學(혹은 典鶴)은 1887년부터 1892년 사이 작화 활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화승으로 짐작된다.⁹⁾ 전학은 수화승 水龍堂 琪銓 밑에서 대구 대광명사 <아미타불회도>(1887), 부산 범어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1887) 제작에 참여하였고, 이어 수화승 霞隱應祥과 더불어 양

⁸⁾ 안귀숙·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繪畫』 동북아불교총서2, 양사재, 2008, 160쪽.

⁹⁾ 앞의 책, 448쪽.

산 통도사 자장암 <신중도>(1890)를 제작하였다. 1890년 이후에는 수화승 민규와 더불어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1891), 진주 청곡사 <시왕도>(1892)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보조화승 德林의 경우는 1890년에 수화승 瑞巖典琪와 더불어 합천 해인사 경학원 <아미타불회도> 제작 참여를 비롯하여, 익년에 수화승 민규와 더불어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1891), 이어 1893년에 수화승 海珪 외에 斗幸과 함께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신중도>에 참여한 작화 활동이 확인된다.¹⁰⁾

표 1.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1891)의 화승 玟奎·典學·德林이 관여한 불화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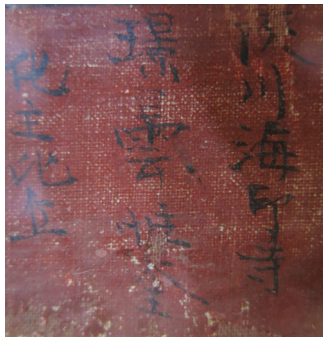
	명칭	소장	연대	참여화승
1	칠성도	부산 범어사 극락암	1891	繪寫 玟奎 典學 德林
2	아미타불회도	경북 대구 대광명사	1887	金魚 比丘水龍琪銓 赤爲化主也 祥奎 天奎 三仁 燦圭 昌元 戒幸 典鶴
3	아미타불회도	부산 범어사	1887	金魚 水龍琪銓 祥奎 天奎 三仁 燦圭 昌元 戒幸 典鶴
4	신중도	경남 양산 통도사 자장암	1890	金魚 霞隱應祥 比丘奉琪 所寬 奉華 正善 典學
5	아미타불회도	경남 합천 해인사 경학원	1890	金魚秩 瑞巖典琪 友松爽洙 鳳奎 敬天 德林 錫洪 性喜 大寬
6	삼라천자도 (시왕도 중)	경남 진주 청곡사	1892	金魚玟奎比丘 典學 斗昊 巨擘 斗幸 明浩
7	신중도	경남 창원 성주사	1892	金魚比丘 玟奎 斗浩 巨擘 斗幸
8	신중도	경남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1893	金魚比丘 海珪 德林 斗幸

현재 확인된 작품만으로는 민규의 사승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함께 작업에 임하였던 전학이 1887년에 수화승 수룡당 기전의 작품에 참여하였고, 1890년에는 수화승 하은당 응상과도 공동 작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전학은 사불산화파의 영향권에 있는 수룡당 기전과 하은당 응상의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작업한 또 한 명의 화승인 덕림은 1890년

10) 앞의 책, 90~91쪽.

11) 화승명단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고경스님(교감)외,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단 구원, 2011.

해인사 경학원 <아미타불회도>에서 수화승 瑞巖 典琪와 함께 작업하였다. 서암당 전기는 수화승으로 활약하기 이전 보조 화승으로서 수화승 天如, 奉儀, 琪銓과 함께 작화 활동을 하였다.¹²⁾ 더불어 1893년 통도사 극락보전 <신중도>에서 덕림과 함께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斗幸의 경우 1892년 진주 청곡사 시왕도 중 <삼라천자도>와 창원 성주사 <신중도>에서 민규와 함께 작업한 것 이외, 1893년 해인사 원당암 십육나한도 중 <아시다존자>를 조성할 당시 수화승 奉華와 片手로서 斗明과 함께 참여하였다.¹³⁾ 봉화는 사불산화파의 화승 중 한 명이며, 斗明은 불사 당시 수화승으로서 활약한 琪銓, 典琪, 爽洙 등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다. 즉, 전학 및 덕림을 비롯하여 두행 등과 같이, 함께 활동했던 화승들의 공통점을 추출하면 사불산화파 및 기전과 관련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민규는 사불산화파 특히, 기전의 화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15. 석남사 산신도 화기 세부

수룡당 기전은 19세기 후반 부산·경남지역에서 활약한 화승으로, 1876년부터 1887년까지 11년간 기전이 관여한 작품은 총 29점으로 파악된다.¹⁴⁾ 기전의 작화 활동은 1876년 해인사 관음전 <수월관음도>와 같은 소규모 불화 조성을 단독으로 시작하여, 1876~79년에 대구 동화사와 진주 청곡사 불화를 제작하였다. 1880년에는 경북 문경 김룡사에서 하은응상과 雪海 珉淨과 더불어 활동하였으며, 1881년에는 冠 虛 宜官과 더불어 해인사에서, 1882년에는 부산 범어사와 장안사의 불화 제작에 수화사로 활약하였다. 이어 1885년에는 해인사·표충사에서, 1887년에 다시 범어사에서 祥奎와 天圭, 전학 등을 거느리고 작화 활동을 하였다.

범어사 <칠성도>에서 보이는 존상들의 얼굴표현과 강렬한 청색의 부분적

12) 안귀숙·최선일, 앞의 책, 446쪽.

13) 고경스님(교감) 외, 앞의 책, 887쪽.

…金魚秩 比丘奉華 片手比丘 斗明 斗幸…

14) 기전의 작품 목록과 기전의 경상지역권 활동 분포는 아래 글을 참조. 박은경 외, 앞의 책, 171~172쪽. 상기의 책은 물론 기존의 불화 관련 서책에서는 기전의 작품 활동시기를 1863년 석남사 <산신도>에서부터 확인하여 24년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최근 울산 석남사 <산신도> 문화재지정조사에서 이루어진 화기분석을 통해 기존의 '기전' 작품이 아닌 '環雲性奎'의 작품임이 새롭게 확인되어, 울산 석남사 <산신도>의 화사는 '성규'임을 본고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도 15).

사용, 주색과 녹색, 청색 등의 착의에 시문된 문양의 표현기법 등은 수룡당 기전 불화의 화풍적 특징이 간취된다.¹⁵⁾ 예를 들어 불화의 주색과 녹색, 청색 착의에 장식된 매점문과 같은 백색 소형의 화문, 삼점문(도 16·17) 등은 수화승 기전작 불화에



도 16.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문양부분, 조선 1891년) 도 17.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문양부분, 조선 1891년)

서 확인되는 동일한 표현기법이다. 이는 기전 밑에서 전학이 보조화승으로 활동하였던 대구 대광명사 <아미타불회도>(1887)(도 18), 부산 범어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1887)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수룡당 기전 불화에서 확인된다.



도 18. 대구 대광명사 아미타불회도(문양부분), 조선 1887년, 면본채색 169×219.5cm

한편, 본 칠성도 하단 칠원성군 도상 그룹을 묶은 배경의 가리개 형태와 같은 광배(도 1 참조), 그리고 광배 내에 묘사된 점묘식 화문 삼입 연속 문양이 주목된다. 먼저, 역U형의 가리개식 광배는 수룡당 기전의 작품 중 가장 앞 열에 일률로 배치된 보살상 그룹을 묶을 때 즐겨 사용한 모티프로, 해인사 관음전 <아미타불회도>(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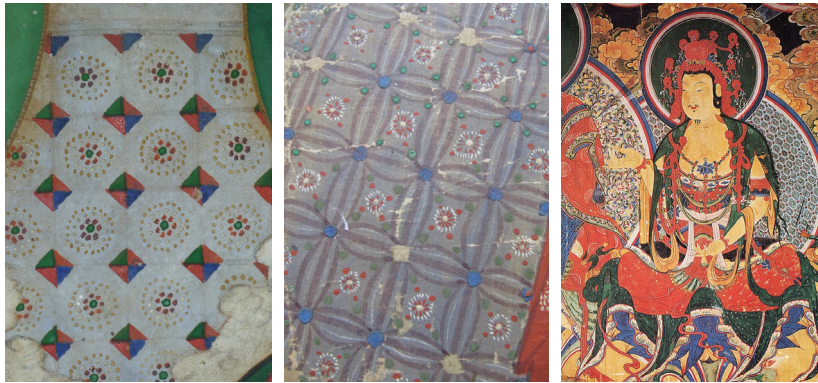
1887년에 조성한 대구 대광명사 <아미타불회도>와 부산 범어사 <아미타불회도>(도 19)처럼 보살상 그룹 등에서 확인된다.¹⁶⁾ 이어 본 불화의 가리개형 광배에 묘사된 퍼즐식 연속 결합문양(도 20)은 조선후기 18세기에 주목되는 이색적인 광배 문양의 일종으로,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1741), 범어사 비로전 <비로자나불회도>(1791)(도 21)의 본존 신광에 소형화문이 삽입된 칠보연결 문양이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많지 않은 작품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로자

¹⁵⁾ 박은경 외, 앞의 책, 210쪽.

¹⁶⁾ 박은경 외, 앞의 책, 177~179쪽 참조.



도 19. 부산 범어사 아미타불회도(부분), 조선 1887년, 건본채색, 157×19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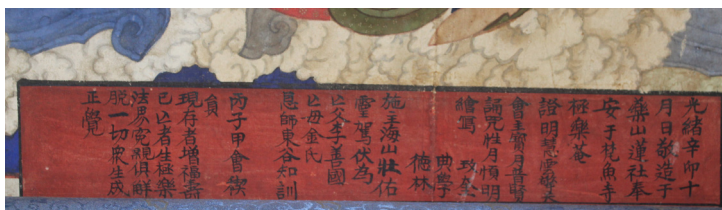
도 20.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문양부분), 조선 1891년 도 21.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신광부분), 조선 1791년 도 22. 통도사 석가설법도, 1861년
건본채색, 79x109cm

나불회도>(1791)의 소형화문은 돌을기법으로 배치하였고, 칠보문은 자색과 백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소형 국화문을 삽입한 연속문양으로 섬세하고 화려하다. <비로자나불회도>(1791)는 편수 永璘과 용안 萬謙이 제작하였고, 동일계 문양은 수화승 영린이 제작한 부산 원광사 <석가설법도>(1791)의 본존 신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⁷⁾ 이같이 돌을기법을 사용한 소형화문 삽입 칠보연결 문양은 이후 1891년에 제작된 본 칠성도의 칠원성군의 배경 문양에도 여전히 사용하였으나, 기존 문양에서 도안화된 문양으로 변형이 된다. 이같은 도안식 연속 결합 문양은 통도사 석가설법도(1861)(도 22), 통도사 극락암 칠성도(19세기), 유가사 신중도(20세기경)의 광배에서도 유사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¹⁷⁾ 박은경 외, 앞의 책, 195~196쪽.

IV. 칠성도의 구성과 契의 결성

칠성도의 하단 중앙에 주색 바탕에 먹선 테두리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기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 23).



도 23.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화기부분), 조선 1891년

光緒辛卯十月
 日月敬造于
 藥山蓮社奉
 安于梵魚寺
 極樂菴
 證明慧雲擎天
 會主寶月普賢
 誦呪性月順明
 繪寫 玟奎
 典學
 德林
 施主海山壯佑
 靈駕伏爲
 亡父李善國
 亡母金氏
 息師東谷知訓

丙子甲會稷
 員
 現存者增福壽
 已亡者生極樂
 法界冤親俱鮮
 正覺

脫一切衆生成

正覺」

화기 내용은 光緒 辛卯年인 1891년 10월에 결사조직으로 보이는 藥山蓮社에서 칠성도를 조성하여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⁸⁾ 이어 승려들의 소임과 이 칠성도를 제작한 화승은 민규, 전학, 덕림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시주자인 海山堂 壯佑가 돌아가신 부모와 스승 東谷堂 知訓스님을 위해 발원한 내용과, 海山壯佑와 병자년(1876)에 결사된 甲會契 계원들이 시주·발원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모든 칠성도가 그러하듯 불교적인 요소와 도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불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도상의 구성과 배열 즉, 불교의 신격화인 치성광여래삼존보다 도교의 도상인 칠원성군을 더 비중 있고 크게 배치함으로써 19세기 도교의 유행과 칠성 신앙의 성행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는 조선말기 사찰의 단청 및 벽화, 불화 등에 다양한 도교의 도상을 습합하여 융복합 도상들을 일구어 낸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같은 흐름 속에 본 불화가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칠성이 관장한다고 믿었으며, 이들을 의인화한 것이 칠원성군이기도 하다. 더욱이 칠성 신앙은 도교 신앙에 기원하므로 다른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도교의 神인 도상들이 대거 등장한다. 古來로부터 칠성 신앙은 존재하였으나 유독 이전의 시기와 달리 19세기에 보이는 폭발적인 성행은 도교와 불교가 민중들과 밀착, 그들에게 깊숙이 침투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이 시기의 도교와 불교의 경전에서는 칠성과 관련된 많은 경전들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 『北斗七星延

18) 藥山蓮社는 결사조직으로 추정되는데, 화기의 형식에 따르면 “敬造于藥山蓮社”에서 ‘藥山蓮社’가 기술된 위치에 조성 장소 즉, 사찰의 명칭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시 ‘藥山蓮社’가 결성되고 이 결사조직으로 대변되는 주된 사찰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 19세기 도교 및 불교와 관련한 칠성 신앙의 성행에 대한 연구는 서경진, 『韓國의 七星信仰 研究 : 特別 文獻資料를 中心으로』, 『논문집』14, 원광대학교, 1980, 61~96쪽; 『韓國七星信仰을 通해 본 道佛 交涉關係』, 『한국종교』6,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1, 170~175쪽; 김낙필,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1, 427~444쪽;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5, 불교학연구회, 2002; 최종석, 『한국불교와 도교신앙의 교섭 : 산신신앙, 용왕신앙, 칠성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61, 한국불교학회, 2011, 7~41쪽; 김만테,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1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133~173쪽; 김형목, 『한국불교 속 삼성신앙 연구 : 탕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外.

命經』등을 들 수 있다.²⁰⁾

칠성 신앙에 의해 조성된 칠성도는 대개 칠성각에 봉안되었으며, 그것은 사찰 경내 주불전의 뒤쪽에 건립되었다. 칠성도를 모시기 위해 때로는 산내 암자의 주요 불전을 중건하였으며,²¹⁾ 사찰 주전각에 모셔지기도 하였다. 칠성각에서는 七星佛供 또는 七星請 등 의식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의례에 나타난 칠성단 의식의 請詞 내용을 살펴보면 칠원성군은 수명, 생자득남, 축수, 축귀, 입신양명, 소원성취, 기우 등 인간에게 있어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사안들에 관한 神力을 보이고 있다.²²⁾ 이는 불교와 도교를 정책적으로 배제했던 유교를 숭앙하는 유생들에서부터²³⁾ 촌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성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 이유가 될 것이다. 더불어 칠성에게 경배하기 위한 의례 자체가 엄격하게 규범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한 것도 한 몫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렇듯 19세기 칠성신앙은 인간의 제액초복을 비는 대상으로 기자적·기복적 성격이 강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전 계층에게, 그러나 특히 민중들 속으로 깊이 그리고 빠르게 스며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와 같이 2단의 구성으로 상단에 치성광여래삼존과 칠여래, 하단은 자미대제를 중심으로 칠원성군이 배치되는 구조는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보이는 형식으로 시기적 특징을 갖는다.²⁵⁾ 이전과 다른 이러한 형식은 치성광여래 그룹(佛格化)과 자미대제 그룹(道格化)이 어느 정도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음을 형식에서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되며, 전술하였던 사회적 특징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불화는 거의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하여 치성광여래 그룹과 자미대제 그룹을 배치하였고, 범어사 극락암

20) 도교, 불교뿐만 아니라 권선서 등에서는 칠성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도교와의 관계가 간취되기도 한다. 김낙필, 앞의 논문, 436~444쪽.

21) 통도사 산내암자의 경우, 안양암 北極殿은 1865년에 중건되었고, 다음해 1866년에 칠성도가 제작되었다. 이외 비로암 北極殿에는 1904년작으로 추정되는 칠성도, 극락암 壽世殿에는 근대작으로 보이는 칠성도가 각각 봉안되어 있다. 운문사 칠성각은 19세기에 중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경남의 전통사찰Ⅱ』 경남의 전통 사찰 총서19, 2005, 92쪽.

22) 복두 제1은 자손에게 만덕을 주고, 복두 제2는 장애와 재난을 없애주며, 복두 제3은 업장 소멸을, 복두 제4는 구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하며, 복두 제5는 백가지 장애물을 없애주고, 복두 제6은 복덕을 두로 갖추게 해주고, 복두 제7은 수명을 오래도록 연장시켜 준다; 안진호, 『석문의법』, 서울 법륜사, 1982, 325~326쪽; 오출세, 앞의 논문, 53쪽; 최종석, 앞의 논문, 33쪽.

23) 이규보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성 안 인왕산의 칠성암에 신당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연일 이어졌다. 선비들이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과거 급제한다고 해서 유생들이 종종 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김만태, 앞의 논문, 162쪽.

24) 앞의 논문, 160~161쪽; 서경진, 앞의 논문, 1980, 62~63쪽.

25) 조선시대 칠성도의 형식 분류는 차재선, 앞의 논문, 1991, 60~79쪽.

<칠성도>처럼 자미대제 그룹을 화면의 2/3 정도 활용하여 중심에 두되 치성광 여래 그룹을 마치 삼태육성, 28수 등과 같은 격으로 배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으로 볼 때 범어사 <칠성도>는 치성광여래보다 당대 자미대제를 비롯한 특히 칠원성군의 신력을 강하게 바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범어사 화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계’이다. 조선후기 칠성 신앙의 유행은 칠성계의 결성으로 반영되어 19세기 중·후반경에 8건의 칠성계가 확인된다.²⁶⁾ 본 칠성도가 제작되어 봉안되었던 범어사에서도 동치(1862~1874) 연간에 극락암 칠성계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또한 범어사는 12개의 甲契 補寺碑가 확인되어 통도사와 함께 전국에서 갑계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²⁸⁾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에도 丙子(1876)년에 결사된 ‘丙子甲契員’의 시주 동참이 확인된다. 병자갑계원의 재원활동은 1882년에 조성된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도>에서도 확인되며, 이들과 함께 ‘庚子契員’, ‘七星契員’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조성된 범어사 대웅전 <석가모니불도>와 <삼장보살도> 역시 ‘丙子契員’와 ‘庚子契員’, 그리고 ‘極樂七星契中’이 함께 시주하였다. 그리고 극락암 <칠성도>에서 병자갑계원과 함께 눈에 띄는 인물로 海山壯佑가 있다. 海山壯佑는 1882년 범어사 대웅전 <석가모니불도>에서 都監, 山中秩, 施主秩에, <백의관음도>와 <삼장보살도>에서는 도감과 시주질에 각기 관여하고 있다.²⁹⁾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술하였던 민규의 화풍이 기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언급했던 범어사의 세 작품이 모두 기전이 수화승으로 활약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갑계와 칠성계는 그 성격이 분명 다르나 契金을 통해 당해 불사를 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범어사는 갑계의 수도 많고 다수 갑계의 甲員들과 칠성계가 함께 불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주목된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칠성계의 경우 칠성계로서의 활동 목적이 있지만, 범어사에서 행해진 1882년 대대적인 불사 당시에는 범어사의 여러 계 중 하나로써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칠성계의 경우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는 ‘칠성계원’으로 적은 반면 <석가모니불도>와 <삼장보살도>는 ‘극락칠성계중’으로 기록하여 계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병자와 경자계의 경우 ‘병자계원’, ‘경자계원’ 관음전 <백의관음도>의 ‘칠성계원’의 경우 계원 개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뉘앙

26) 한상길, 앞의 논문, 2000, 73쪽 ; 『梵魚寺誌』, 1989.

27) 앞의 논문, 73~74쪽 ; 앞의 책, 585~586쪽.

28) 이재창, 『조선시대 승려 갑계 연구』, 『불교학보』1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53쪽.

29) 박은경 외, 앞의 책, 229~243쪽(불화화기) 참조.

스가 더 짙다. 더욱이 海山壯佑를 비롯하여 기전 등 여러 소임에서 동일한 인물들이 파악되어, 상황에 따라 각 계들 간에 혹은 계와 계원들 간의 불사 활동이 유동적이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상 조선 19세기에 활발했던 계의 결성이 사찰 불화 제작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것과 더불어 신앙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19세기 도교와 칠성신앙의 성행, 이를 방증하듯 19세기 중엽 이후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던 칠성계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칠성도에서의 도상 및 구도의 변화,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19세기 칠성 신앙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미술사적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도상의 구도배치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식 변화보다 더 과감함을 꾀하고 있어 당시의 시대상과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불화라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도상, 화풍, 조성의의 등 작품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가로축이 긴 장방형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19세기 말~20세기 초기 불화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식을 잇고 있으며, 19세기 칠성도에서 보이는 상·하 2단의 구도와 치성광불·칠성여래 그룹과 칠원성군 그룹을 각기 상단과 하단에 배치하는 도상배열의 형식이 확인된다. 그러나 본 작품은 하단에 배치된 도교의 도상적 표현인 칠원성군을 상단의 불격화된 치성광불·칠성여래보다 비중 있게 부각시킨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는 당대 도교의 성행과 칠성계를 중심으로 한 칠성 신앙의 유행을 적극적으로 불화에 표현한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를 제작한 수화승 민규는 채색기법과 문양시문 기법 그리고 광배의 독특한 표현 등의 화풍적 특징에 있어 19세기 부산·경남 일대에서 활발히 활동한 수룡당 기전의 화풍과 유사성이 간취된다. 민규는 직접적으로 기전과 작화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본 작품에 함께 참여한 전학이 기전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덕림과 함께 작업하였던 전기 또한 기전과 함께 불화를 제작, 그리고 나아가 민규, 전학, 덕림과 함께 작업하였던 두행 역시 사불산화과의 화승 또는 기전과 함께 작업하였던 화승들과 관련이 있는 사실 관계를 통해

민규가 기전의 화풍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화기에 기록된, 범어사를 기반으로 한 ‘계’의 명칭과 ‘계원’들의 시주명단, 그리고 발원 배경 등의 상세한 내용을 통해 당시 칠성 신앙의 유행이 칠성계의 결성으로 반영되었고, 이 같은 계의 결성이 사찰 불화 제작의 경제적 뒷받침과 신앙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되새김할 수 있었다.

* 본고에 수록된 범어사 칠성도의 비교 도판 자료는 『한국의 불화』1~32권(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6~2004)에 수록된 도판을 활용하였다.

■ 투고일 2014년 7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6일 ■

참고문헌

<사료>

- 『梵魚寺誌』, 1989.
『五洲衍文長箋散稿』

<국내>

- 이재창, 「조선시대 승려 갑계 연구」, 『불교학보』1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서경전, 「韓國의 七星信仰 研究 : 特히 文獻資料를 中心으로」, 『논문집』14, 원광대학교, 1980.
_____, 「韓國七星信仰을 通해 본 道 · 佛 交涉關係」, 『한국종교』6,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1.
안진호, 『석문의범』, 서울 법륜사, 1982.
차재선,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낙필,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1.
차재선,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고고미술』186, 한국미술사학회, 1991.
성보문화재단연구원, 『한국의 불화』1~40, 1996~2007.
강소연, 「조선시대의 칠성탱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효열, 「조선후기 칠성도 비교연구 : 전라도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양식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상길, 「조선후기 사찰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5, 불교학연구회, 2002.
사찰문화연구원, 『경남의 전통사찰Ⅱ』 경남의 전통사찰 총서19, 2005.
김정희, 「조선 후반기 불화의 대외교섭 : 대중교섭을 중심으로」,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아트, 2008.
안귀숙·최선일,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 : 佛敎繪畫』 동북아불교총서2, 양사재, 2008.
강소연, 「강소연의 미술사 기행(3) : 천공의 별들이 부처님으로 化하다」, 『文學史학 哲學』16, 한국불교사연구소, 2009.

- 고경스님(교감) 외, 『한국의 불화 화기집』, 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11.
- 박은경 외, 『범어사의 불교미술』 석당학술총서19, 선인, 2011.
- 최종석, 『한국불교와 도교신앙의 교섭 : 산신신앙, 용왕신앙, 칠성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61, 한국불교학회, 2011.
-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복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1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 김형목, 『한국불교 속 삼성신앙 연구 : 탕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금강문화재·범어사, 『부산 범어사 칠성도 보수·보존』, 2013.

Abstract

Study of Guekramam 'Chilseong Painting' of Beomeosa Temple in Busan

Park, Eun-Kyung

A great deal of Buddhist paintings were created on various subjects during the Joseon dynasty. Buddhist paintings depicting numerous stars strewn across the sky, the North Star and the Big Dipper as Buddhist and Taoist images are called Chilseong Painting. Approximately more than 100 pieces of Chilseong Painting paintings were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about 10 of them remain in Beomeosa Temple in Busan. This study examined the very early work of Chilseong Painting housed in Beomeosa Temple in Busan, Guekramam 'Chilseong Painting' of Beomeosa produced in 1891, to discover its characteristics, style and significance of creation.

Guekramam 'Chilseong Painting' of Beomeosa Temple displays an ordinary format of the 19th century Buddhist painting with a rectangular screen and a two-step composition of placing images in the top and bottom. However, in terms of arrangement and expression of images, devout prayers to Buddha in the top, distinguished expression of the Great Bear that is an image of Taoism, placed below the Great Buddha Great Bear are the only characteristics found in Guekramam 'Chilseong Painting'. The style of painting portrays a style of Suryongdang mechanism that was active in the entire area of Busan and Gyeongnam in the 19th century with regard to color and design technique. The relationships between Mingyu as a leading monk painter and Jeonghak and Deoklim as assistant monk painters who participated in this work and various monk painters who worked on other projects with them are presumed to be that Mingyu did not work with Gigeon, but learned of his style. Also, the painting story suggests Gaphoegye members joined

in the production of Guekramam 'Chilseong Painting' by donations. Around the late and end of the Joseon dynasty, Taoism and Chilseong faiths were prevalent while the spread of Chilseong faith led to the formation of the Chilseong Faraternity. The Gaphoegye(Gap Faraternity) of Beomeosa Temple was understood to be in the same context, and this 'gye' was part of production of other Buddhist paintings of Beomeosa Temple proving to be a source of finances to Buddhist paintings of Beomeosa Temple. Guekramam 'Chilseong Painting' confirms that the active formation of gyes in the 19th century of Joseon provided financial support in producing Buddhist paintings and played a major role in religious activities.

Key Words : Beomeosa Temple, Chilseong Painting, Mingyu, Gigeon,
Chilseonggye(Chilseon Faraternity)